

## 정원오 “시정철학 잘못” 오세훈 “공허한 말잔치”

鄭 “吳 목표 '대권' ... 거대한 업적 만들기만 관심”  
 吳 “鄭 문화관광 구상은 레토릭뿐 디테일은 없어”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15일에도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15일 “시 행정의 주인은 시민이어야 하는데, 주인이 어느 순간 시장으로 바뀌었다”며 “시정 철학이 잘못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 후보는 이날 진여성향의 유튜브 채널에서 “오 시장의 목표가 대권에 가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그는 오 시장이 추진한 서울역, 감사의 정원, 노들섬에 설치될 예정인 건축가 ‘토마스 헤더릭’의 작품 등을 겨냥해 “이명박 전 시장의 정계전 같은 것(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란드마크나 거대한 업적을 자주(만들어야) 한다”며 “시민이 바라는 게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서도 “안전을 뒤로 미루고 교통용으로 시작한 것부터 잘못”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단 (한강버스를)중단시키고 전면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없다면 폐기해야 하고 보완할 수 있다면 관광용으로 써야 한다”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반면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가 공들인 것을 모두 저절로 된 것이라 폄하하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라며 “‘보여주기식’, ‘서울다들’ 같은 레토릭 대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하며 서울의 격을 높일 수 있는 일찍이 하는 제안을 가지고 정정 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라”고 일갈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원오 후보의 문화관광 구상을 보면 한마디로 쥐를 어떻게 잡는지 문젠데 쥐를 잡는 방법을 찾겠다고 하는 격”이라고 혹평하면서 이

같이 조연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물론인 그거 아름다운 서울, 관광객이 찾아오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레토릭만 있고 디테일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 후보는 오세훈 시장의 관공정적용을 ‘보여주기식’이라 했다”며 “전세계에서 누적 1억명 넘게 방문한 DDP도 보여주거나, 파리의 에펠탑, 런던의 런던아이도 같은 시각으로 보시냐”고 따졌다.

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겨냥해서도 “마를 공중제하는 레토릭에 빠져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낙후된 주거지에 벽화만 그리다 끝난 세월이 얼마나”라며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폭등과 날아버린 도심 인프라는 고통으로 시민들에게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레토릭 행정의 그림자가 정 후보에게서 다시 보인다. 시민들은 더 이상 알맹이 없는 말잔치에 속지 않는다”라며 “시민에 대한 진정함 예의는 오직 실력과 진정성 있는 공약으로만 증명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민 기자 joy@siminilbo.co.kr

##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무산설... 전재수 “무조건 열린다” 일축

친한 박상수 “한동훈 전입신고... ‘무조건 출마’ 의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데 대해 당사자인 전 의원은 15일 “보궐선거는 무조건 열린다”고 일축했다.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한 전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외의 시회 시정’ 관련 질문에 “조만간 할 것”이라고 뜻을 밝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궐선거 무산 가능성” 전망은 한동훈 전 대표 측근 인사인 박상수 변호사가 “전 의원은 4월30일 이전에 사퇴해야 보궐선거가 가능”한데 5월 초에 사퇴해 보궐선거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는 협박을 들었다”고 언급하면서 비롯됐다.

앞서 전날 오후 MBC 라디오에 출연한 박 변호사는 “지난 주말쯤 부산 지역 언론으로부터 ‘전재수 민주당 의원 임정이 달라지고 있

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당시)한 전 대표가 말 덕분에 이따위를 구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SNS에 (이름)알리는 바람에 전입신고까지 하게 된 것”이라며 “‘무조건 나갈 테니 사퇴해 선거를 열라’라는 뜻에서 전입신고까지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이상 전 의원에게 ‘확실히 사퇴해서 선거를 열라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며 “한동훈을 낙방할 오라 말 싼

세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전 의원을 상대로 한 음소를 이어갔다.

한편 전 의원은 ‘고교 6년 후배인 하경우 청와대 AI 수석의 출마를 거론했다’는 지적에 “제가 하경우 수석을 꼭 잡은 것이 아니라 ‘하 수석과 같은 다음 세대의 등장을 말했던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제 손을 완전히 떠났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러면서 “답이 정략 공천을 한다고 하니 알아서 할 사안”이라며 “더 이상 이 문제에 끼어들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영민 기자 joy@siminilbo.co.kr



오늘도 초여름 날씨  
 목요일인 16일은 낮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이어갔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5~12도, 낮 최고기온은 14~27도로 예보됐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평년보다 6도가량 높은 기온은 17일 다시 예보되고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지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충청권·경주·전북은 새벽 시간대 ‘나쁨’ 수준이겠다. 자외선은 15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서울 평화문 광장으로 나온 주민 직장인과 시민, 관광객들이 평정을 가득 채우고 있다. /연합뉴스

## 중동 전쟁 대응... 경기도, 농업경영체 350억 저리 대출

수출농식품 포장재등 4개 사업 구입비도 40% 지원

경기도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농업인·농식품 생산업체를 위해 포장재 지원과 저리대출 등 총 390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일부터 중동 전쟁에 대응한 농업인분야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있는 도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 포장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산물·식품 제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선제적 지원에 나서기로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 ▲도지사 인증 ‘도마코’ 농산물 포장재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등 총 4개 사업을 통해 포장재 구입 비용 총 4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포장재 지원은 수출 경쟁력 유지 뿐만 아니라 신선 농산물의 유통 비용을 낮춰, 농업경영체의 생산비 절감과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회중 안전친환경농업 조합장은 “중동 전쟁 여파로 수출용 파우치 등 포장재 가격이 약 20% 이상 오르고, 물류비도 베트남 25%, 튀르키예 150% 급등했다”며 “원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제품 생산 차질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고 현장의 애로사항이 매우 크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와 함께 도는 농업농촌진흥기금 350억원 규모의 농업인 긴급경영자금 저리 대출을 시행, 중동 전쟁으로 인한 현장의 자금난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도내 농업인 경영체 대상 연

1%로 경영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 개인은 6000만원, 법인은 2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아울러 농업인·농식품 수출 품상촉진단을 운영하는 ‘무역위키’ 대응 K-푸드 글로벌 수출시장 다변화’와 관세 이외의 다양한 규제 해소를 지원하는 ‘무역위키 대응 K-푸드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한 경기도 농식품이 해외시장에 널리 알려지고 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장 의견 수렴 결과, 최근 원유 수급 차질과 물류비 상승으로 농업인과 농식품 기업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경기 농식품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지 제3회 인천과학축제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청라호수

## 인천시, 17~19일 과학문화행사

강연·공연·시진전 등 즐길거리  
 인천시가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17일부터 19일까지 청라호수공원과 인천어린이과학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학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59회 과학의 날(4월21일)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과학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3회 인천과학축제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청라호수

공원 멀티플라자에서 열리며, 17일 오후 6시30분 ‘금요일에 과학터치’ 과학강연을 시작으로 18일부터 19일까지는 아이 체험부스와 과학공작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과학기술훈과 유공자 표창을 포함한 기념식을 비롯해 ▲과학미술포럼 및 버블스 ▲로봇공작 ▲천체사진전 ▲전라산악연계 체험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도심 속에서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같은 기간인 18일에는 인

천어린이과학관에서 ‘놀다 보니 과학!’을 주제로 ▲과학퀴즈 ▲마술쇼 ▲체험부스 10종 ▲인생버킷 활동 ▲로봇강연 등 체험 등 각종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과학의 흥미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 구성돼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당일 인천어린이과학관의 상설전시관 관람료와 주차료는 무료이며 상설전시관 관람을 위해서는 인천어린이과학관 홈페이지

를 통한 온라인 사전 예매가 필요하다.

시는 과학의 날 맞이 두 행사를 통해 청라호수공원의 열린 공간에서 축제의 활기를 더하고, 인천어린이과학관에서는 체험 중심의 과학 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과학문화 향유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시민들이 과학을 보다 가까이 느끼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해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보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중요한 세금납부 내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신고·납부기간 : 2026. 4. 1. ~ 4. 30.]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신고·납부기간 : 2026. 4. 30.(목) 까지

※ 연결법인의 경우 5월 말까지

주력  
 교육  
 미래  
 기획  
 복지

융합  
 문화  
 성과  
 일자리

1 |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법인소득

2 | 납 세 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분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3 | 신고·납부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전자 신고 또는 납세지 관할 사·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4 | 신고·납부시 유의·참고사항

- 관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별 지자체에 각각 제출, 첨부서류는 분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
- 둘 이상 지점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별 신고·납부 (하의 신고지자체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간선 부과))

수원시 세무과(031-228-3811), 장안구 세무과(031-228-5296), 권선구 세무과(031-228-6307), 팔달구 세무과(031-228-7447), 양말구 세무과(031-228-8591), 고신시 세무과(031-8075-2243), 덕양구 세무과(031-8075-5105), 일산동구 세무과(031-8075-6132), 일산서구 세무과(031-8075-7071), 송파시 세무과(031-729-8942, 8498, 8496), 용인시 세무과(031-8193-3155), 처안구 세무과(031-8193-5186), 기흥구 세무과(031-6193-6181), 수지구 세무과(031-6193-6181), 화성시 세무과(032-625-2592), 안산시 세무과(031-481-2408), 삼척군 세무과(031-481-5200), 단양군 세무과(031-481-6161), 남양주시 세무과(031-590-4023), 안양시 세무과(031-8045-5545), 만안구 세무과(031-8045-3856), 용인시 세무과(031-8045-4395), 화성시 세무과(031-5189-7152, 2208), 평택시 세무과(031-5189-5665), 광명시 세무과(031-5189-4171), 평택시 세무과(031-8024-2311), 송파시 세무과(031-8024-6221), 안양시 세무과(031-8024-6171), 의정부시 세무과(031-828-2732), 시흥시 세무과(031-310-2071), 남양주시 세무과(031-949-5752), 김포시 세무과(031-989-2610), 광명시 세무과(031-989-2722), 양주시 세무과(031-790-8722), 군포시 세무과(031-390-0529), 오산시 세무과(031-8036-7174), 인천시 세무과(031-644-2197), 양주시 세무과(031-8082-5531), 안산시 세무과(031-678-5482), 구리시 세무과(031-550-2482), 포천시 세무과(031-538-2983), 연천시 세무과(031-345-3793), 하남시 세무과(031-790-5054), 아산시 세무과(031-887-2192), 양평군 세무과(031-770-2899), 동두천시 세무과(031-860-2200), 과천시 세무과(02-3677-2962), 가평군 세무과(031-580-2183), 연천군 세무과(031-639-2163)

변의 중심  
 기획의 경기